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al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 03

---

##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 차례

1. 시절 인연  
또 봄이 오는가
2. 법정 스님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선의 정신 1
4. 법정 스님 잔소리  
수도자의 자세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3
6. 불일암 구석구석  
달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3월의 바람 속에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대구 경남 광주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쓰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3월 1일 발행, 통권 313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71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1. 시절 인연

### 또 봄이 오는가

겨울의 잔해는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설악산 골짜기와 시정의 쌀가게에서는 '겨울'이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 달력은 산뜻한 3월로 싱그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대지는 마냥 한랭한 고기압권이다. 그러나 지금 어디선가 봄은 움트고 있으리라.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라도 켤 것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부연 토우(土雨)가 3월의 하늘 아래 내릴 것이다. 지난겨울의 비애를 딛고 새봄을 마련하는 나뭇가지를 매만져 줄 것이다. 자연의 계절은 이렇듯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어제 오후 물건을 사려고 시장에 들렀다가 가게 주인에게 축출을 당했다. 가끔 당하는 일이라 새삼스레 서운할 것도 화낼 것도 없는 일. 세상과 마주친 것뿐이다. 남루한 겉모양으로 해서 무얼 얻으려 온 거지로 안모양이었다. 겉모양이 알맹이보다 화려해야 팔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있을 법한 일이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서글픈 일이다. 같은 인간 가족끼리 대화 이전에 겉모양만 보고 내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서글픈 일이다.

<스프링 소나타>가 3월의 창가를 울리고 있다. 난초 분에서는 초승달처럼 가녀린 꽃이 조심스레 올라오고 있다.

인간의 계절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련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극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새날을 비상(飛翔)하는 의지의 날개가 꺾이지 않는 한 좌절이란 있을 수 없다. 어제를 딛고 오늘은 일어서야 한다.

이 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말자. 어떤 봄을 마련할 것인가를, 이른 새벽이라도 생각해 보자. 그래서 겨울의 그늘진 잔해를 우리들의 영토로부터 말끔히 씻어 내야겠다.

법정 스님이 1969년에 발표한 글입니다. 52년 전, 스님 나이 37세 때 일입니다. 시간은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마련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극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고 합니다. 삶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그것을 만드는 연출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한편의 연극이 막을 내릴 때 비극은 비장미로 찬란하고 희극은 인간미로 다정합니다. 연출가는 다음 작품을 준비합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불제자에게 절망의 틈은 없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인생,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인간의 계절은 어디서 오는 걸까?

겨울 가고 봄이 오는 소리, 들리십니까?

## 2. 법정 스님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물질은 쌓여 가는데 마음은 더 불안하다. 세상은 빨라지는데 육신은 더 느려진다. 이럴 때 몸과 마음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맑고 향기롭게》 2021년 3월호를 통해 법정 스님이 보내시는 선물을 읽어 보세요. 마음은 편해지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이달에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열반경 사의품》,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법정 스님의 목소리로 다시 듣는 기회입니다.

###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

**첫째 진리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덧없는 존재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네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임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바른 견해를 얻고 싶거든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입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바로 죽여라.”

칼릴 지브란은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한다.

“서로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얽어매지는 말라...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즐겨라. 그러나 서로서로 혼자 있게 해 주라. 마치 거문고 줄이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줄들은 서로 떨어져 있듯이.”

임제 스님은 또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말라. 내 눈에는 부처도 한 날 똥단지과 같고 보살과 나한은 목에 씌우는 칼이요 손발에 채우는 차꼬와 같다. 이 모두가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이

니라.”

선사는 인혹(人或)을 거부한다. 인혹은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이다. 일단 붙잡히면, 얽매이면 본래의 건강을 잃고 만다. 임제 스님은 인간은 절대 자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말은 뜻을 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하나의 뜻도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된다. 그만큼 말은 부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다. 말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다.

야운 스님은 <<자경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입에 말이 없으면 어리석음을 돌려 지혜를 이룬다. 입은 화로 들어가는 문이다. 꼭꼭 닫아라(口無多言 則轉愚成慧 口是禍門 必加嚴守).”

승찬 스님은 <<신심명>>에서 이렇게 말한다.

“말 많고 생각 많으면 서로 맞는 것 없고 말 끊고 생각 끊으면 맞닿지 않는 곳이 없다(多言多慮 轉不相應 絕言絕慮 無處不通).”

좋은 친구란 말이 없어도 답답하지 않고 넉넉한 사이이다. 말을 빌지 않고도 뜻을 캐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을 쏟아 버리고 나면 늘 허전하다. 마치 추수하고 난 들녘처럼 쓸쓸한 것이다. 그러고는 아쉬움이 밀려온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침묵은 공과 같다. 침묵을 배경으로 한 말이어야 설득력이 있다. 연주가 끝난 뒤 고요가 없다면 어떻게 음악을 들겠는가? 현대인들은 자기 언어가 없다. 남이 쏟아 버린 말을 흉내 내기 때문이다. 자기 사유의 침묵이 아쉽다.

### 셋째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 많다. 지식은 잿빛 이론일 뿐이다. 그 자체는 공허한 것이다. 피곤한 소음 같은 것이다. 인격과는 관계가 없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의 행동에 실망할 때가 많지 않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사랑은 지혜에서 나오지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을 편하게 해 주는 것도 지혜이지 지식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매사에 순수하게 몰입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둘은 그 일 자체에서 사는 고마움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셋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모두 합치면 하나가 된다. 일상적인 정진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는 조금씩 움터 나는 것이다. 지혜란 한없는 밝음, 곧 무량광(無量光)이어서 모자람이 없는데 이것이 모두 우리들 자신의 청정한 심성에서 비롯된다. 어디 다른 데서 빌려 오는 것이 아니다.

### 넷째 대승에 의지하고 소승에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고등동물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은 대승보살행의 표본이 된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은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라는 발원에서 확인된다. 그는 자비의 화신이다.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부르지만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을까?

##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2021년 3월 법정 스님 따라 하기는 선의 정신입니다. 스님은 1987년에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강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선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원고 첫머리에 “선의 출발 : 敎外別傳,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고 써 두신 것이 눈에 띕니다. 우리는 앞에서 좌선의 방법과 참선의 마음가짐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따라 할 선의 정신은 진정한 선의 길을 안내합니다. 법정 스님의 선이 어떤 사상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도 법정 스님처럼 선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함께 따라 해 볼까요?

### 선의 정신 1

선은 인도에서 발생하고 선종은 중국에서 일어난다. 좌선은 고대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일어난 선종이 인도의 전통 수행 방법에 일대 변혁을 일으킨다. 선이 곧 좌선인 줄 알고 마음을 안정하는 것으로서 선을 삼는 오류는 일찍부터 있었다.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유마경>>에서 유마 거사와 사리불존자의 문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언젠가 사리불존자가 고요한 숲속, 한 나무 아래 앉아 좌선하고 있을 때, 유마힐이 보고 그에게 말했다.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선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 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동요됨이 없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생각이 쉬어 버린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마음이 고요에 빠지지 않고 또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앉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부처님이 인정하시

는 좌선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 <<육조단경>>이 있다. 여기서  
는 선을 이렇게 말한다.

‘밖으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동요됨이 없는 것을 좌  
(坐)라하고, 본성을 보아 흠어지지않음을 선(禪)이라 한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지혜의 활동을 가리킨다.

마조 스님이 젊었을 때 남악 회양 선사 문하에서 좌선하고  
있었다. 하루는 선사가 물었다.

회: 무엇하고 있나?

마: 좌선합니다.

회: 좌선은 해서 무엇하게?

마: 부처가 되려고 좌선하지요.

이튿날 선사는 마조가 좌선하는 앞에 가서 벽돌을 돌에 갈  
았다.

마: 스님, 벽돌을 갈아 뭘 하시렵니까?

회: 거울을 만들 거야.

마: 아니,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다니요?

회: 그래, 앉아만 있으면 부처가 될 줄 아나?

이 말에 젊은 마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회: 소 수레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수레를 때려야 하나, 소  
를 때려야 하나?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상관이 없는 것이며,  
부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집착이 없어서 취하  
고 버릴 게 없는 것이 진짜 선이지!

이 말을 들은 마조, 마음의 눈을 번쩍 떠 개안(開眼)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무엇인가?

좌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좌선의 태도, 특히 그 마음가  
짐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마음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마

음을 어지럽히지 않음이 더 중요하다.

수본진심 제일정진(守本真心 第一精進)

<<선가귀감>>에서 서산대사는 말한다.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자기 성품을 더럽히지 말라.  
바른 법을 찾는 것이 바르지 못한 일이다.”

버리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다 같이 더럽힘이다. 인위적인  
행위를 물리쳤다. 무심이다.

유이무념위종(唯以無念爲宗)

오로지 생각 없음으로만 으뜸 삼는다.

절의 주련들을 보라. 통도사 극락전 앞에는 이런 주련이 있다.

山中何所有(산중하소유)

嶺上多白雲(영상다백운)

只可自怡悅(지가자이열)

不堪持贈君(불감지증군)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산마루에 떠도는 구름 무더기

다만 홀로 즐거워할 뿐

그대에게 보내 줄 수가 없네.

원래 선은 좌선으로써 행동의 근본을 삼지만, 좌선만이 아  
니고, 일상의 기거동작마다 삼매의 정신으로 순화되고 통  
일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좌선을 하는가?

깨달음을 목적인 좌선이 아니고, 좌선 그 자체가 부처나 조  
사의 살아 있는 모습, 깨어 있는 모습이다.

수행 가운데 증(證), 곧 깨달음은 저절로 갖추어져 있고, 증  
위에서 수행은 자유로이 행하는 것이다.

본래정정(本來清靜), 곧 불성이기 때문에 무한히 정화하여  
그 본성을 증명해야 한다.

본증묘수(本證妙修)가 곧 수행의 뜻이다.

그러므로 좌선은 습선(習禪)에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대안락(大安樂)의 법문(法門)이고, 불염오(不染汚)의 수증(修證)이다.

왕유(王維)의 시는 대안락의 법문이다.

軟草承趺坐(연초승부좌)

長松響梵聲(장송향범성)

空居法雲外(공거법운외)

觀世得無生(관세득무생)

봄풀을 깔고 선정에 들면

솔바람 소리는 그대로 범패

티끌 하나 날아들지 못하는 이곳

죽음도 삶도 내 몰라라

송나라 야보 도천 선사의 송은 불염오의 경지를 보여 준다.

山堂靜夜坐無言(산당정야좌무언)

寂寂寥寥本自然(적적요요본자연)

何事西風動林野(하사서풍동임야)

一聲寒雁唳長天(일성한안루장천)

산속 작은 집 고요한 밤, 나는 앉아 말 없는데

고요하고 쓸쓸하다, 무슨 이유 있겠나

바람은 서쪽에서 와 나무와 풀을 흔들고

겨울 기러기 소리는 긴 하늘에 울리네

그러므로 진정한 선지식(善知識), 곧 의사는 병이나 약의 연구자가 아니고, 약이 소용없는 본래의 건강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계속)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선의 정신 2는 《맑고 향기롭게》 4월 호에 이어집니다.)

## 4. 법정 스님 잔소리

법정 스님 잔소리, 이달에는 출가자에게 전하는 스님의 말씀입니다. 1980년대 어느 해엔가 법정 스님은 출가를 앞둔 수도자들에게 출가의 정신을 일깨웁니다. 출가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자세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홉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출가한 수행자와 재가의 불제자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출가자에게 필요한 당부라면 재가자에게도 유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출가를 앞둔 수도자들에게 법정 스님의 당부는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부터 법정 스님 잔소리, 함께 들어 보겠습니다.

### 수도자의 자세

출가의 정신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자세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려면 아홉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1. 마음의 갈등을 달고 일어서야 한다. 내면의 악마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확고한 신념과 공지를 지녀야 한다.
2. 공동체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공동체란 곧 나의 복밭이다.
3. 자신이 수도자로서 평생 받아 쓸 수 있는 복과 덕을 나날이 지어야 한다. 자신의 일에 스스로 길들일 것.
4. 수도란 현재를 최대한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서 마쳐야 한다.

5.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고 일이 의무일 때 인생은 지옥이다. 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낙원과 지옥이 갈라진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수도다.

6. 소임에 충실한 사람이 충실한 수도자요 풍성하게 존재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나 그 일 자체가 되어 순수하게 몰입하고 지속해야 한다. 삼매의 경지란 진짜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잔잔한 기쁨과 감사의 생각이 떠오른다. 일거리가 없는 것은 삶의 소재가 없다는 말이다.

7. 살 때는 삶에 철저히 하여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히 하여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 생야전기 현사야전기현(生也全機現死也全機現) 열 자를 기억하라.

8. 수도자에게 게으름은 최대의 악덕이다. 악덕은 습관과 함께 시작된다. 습관은 녹이다. 그것은 혼의 강철을 녹슬게 한다.

9. 역경을 극복하는 데서 잠재력이 일깨워지고 의지력이 굳어진다. 난행능행 존중여불(難行能行 尊重如佛). 어려운 일을 해내면 부처처럼 존경을 받게 된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여덟 자를 기억하라.

難行能行 尊重如佛. 어려운 일을 해내면 부처처럼 존경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아홉 가지 잔소리를 잊지 말고 실천해서 부처님처럼 존경받아 봅시다.

##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3

### 승락국 묘봉산에서 덕운 비구를 만나다

장엄당 사리탑에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얻은 우리는 승락국 묘봉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 길을 가는 동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선 이런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야 보현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을까?’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길을 가다 보니 문득, 우리 앞에 승락국 묘봉산이 나타납니다. 선재동자가 앞장서서 묘봉산에 오릅니다. 사방으로 찾아다니며 살펴보았지만 덕운 비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두 찾아 나섰지만 덕운 비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레가 지난 날, 선재동자가 건너편 산에서 거닐고 있는 덕운 비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체 없이 달려가 엎드려 발에 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돌았습니다. 선재동자가 말했습니다.

“비구님,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서 보현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비구께 청하면 가르쳐 주신다니, 저에게 일러 주소서. 어떻게 하면 보살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덕운 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다,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고, 또 보살행을 물으니 이는 어려운 일 중에도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보살행을 구하며, (求菩薩行)

보살의 경계(境界)를 구하며, (求菩薩境界)

보살의 벗어나는 도를 구하며, (求菩薩出離道)

보살의 청정한 도를 구하며, (求菩薩清淨道)

보살의 청정하고 광대한 마음을 구하며, (求菩薩清淨廣大心)

보살의 성취한 신통을 구한다. (求菩薩成就神通)

보살의 해탈문을 구하며, (求菩薩示現解脫門)

보살이 세간에서 짓는 업을 나타내기를 구하며, (求菩薩示現世間所作業)

보살이 중생의 마음에 따라 줌을 구하며, (求菩薩隨順衆生心)

보살의 생사와 열반문을 구하며, (求菩薩生死涅槃門)

보살이 유위와 무위를 관찰하되 마음에 집착이 없음을 구하는 일이다. (求菩薩觀察有爲無爲心無所着)

나는 자유자재하고 결정적인 이해력을 얻어 믿는 눈이 청정하며, 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치므로 경계를 두루 살펴 모든 장애를 벗어났다. 오묘하게 관찰해 넓은 눈이 밝아서 청정한 행을 갖추었으며,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 가서 여러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며,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두루 지니고 항상 시방의 부처님을 뵈옵는다. 그러나 큰 보살들이 끝없는 지혜를 청정하게 수행하는 문은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자 선재동자가 묻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덕운 비구는 이렇게 일러 줍니다.

“남쪽에 가면 해문(海門)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 해운(海雲) 비구가 있다. 그를 찾아가 이렇게 물어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습니까? 그는 광대한 선근(善根)을 발하는 인연을 분별해 말해 줄 것이다.”

가르침을 얻은 선재동자, 덕운 비구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 함께 떠납니다. 모두 합쳐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何學菩薩行 修菩薩道



## 6. 불일암 구석구석



사진 덕조

### 달

지난달에 불일암에서 수행하는 덕조 스님이 예불을 마치고 마당에 내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상은 눈에 덮여 별천지인데 달만 겨울 하늘에 별처럼 빛납니다. 마침 법정 스님도 비슷한 시간에 불일암에서 같은 경험을 써 두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밖에 나가니 반쯤 이지러진 달이 후박나무 가지에 걸려 있다. 빈 가지만 남은 그림자를 땅에 드리우고 서 있는 나무는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것 같다. 달이 나무에 대고 뭐라고 소곤거리는 것 같은데 내 귀가 밝지 못해 잘 알아들을 수 없다. 아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내가 이제껏 달과 나무를 참으로 사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에 끼어들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골짜기에서 은은히 울려오는 얼음 풀린 시냇물 소리에 귀를 모으면서 달빛 어린 새벽 뜰을 거니노라니, 사람이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기특한 일인가를 새삼스레 헤아리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 아래서라도 인생은 분명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한다. 멀고 거창한 데서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이해인 수녀가 《맑고 향기롭게》 가족에게 바람을 보내 주셨습니다. 먼 데서도 잠들 수 없는 3월의 바람, 보이지 않게 우리를 흔드는 3월의 바람,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라고, 시린 햇빛으로 희망을 길썬하라고 이 봄에 우리를 부추깁니다.

### 3월의 바람 속에

어디선지 몰래 들어온 근심 걱정 때문에  
겨우내 몸살이 심했습니다  
흰 눈이 채 녹지 않은 내 마음의 산기슭에도  
꽃 한 송이 피워 내려고  
바람은 이토록 오래 부는 것입니까

### 3월의 바람 속에

보이지 않게  
꽃을 피우는 당신이 계시기에  
아직은 시린 햇빛으로 희망을 짜는 나의 오늘

### 당신을 만나는 길엔

늘상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살아 있기에 바람이 좋고

### 바람이 좋아 살아 있는 세상

혼자서 길을 가다 보면  
보이지 않게 나를 흔드는 당신이 계시기에

### 나는 먼 데서도 잠들 수 없는 3월의 바람

어둠의 벼랑 끝에서도  
노래로 일어서는 3월의 바람입니다

##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법정 스님 입적 11주기 추모 법회

‘무소유’의 지혜를 일러 주시고,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셨던 법정 스님(1932~2010)의 입적 11주기 추모 법회를 3월 9일(음력 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성북동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합니다. 이번 11주기 추모 법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간소하게 봉행될 예정입니다.

#### 2021년 '맑고 향기롭게 · 대학생 장학생' 공모 안내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부터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바꾸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본 회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자신이 가진 역량을 더욱 크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선발 인원 : 20명 내외
- 지원 금액 : 300만 원 (분할 지급)
- 지원 기간 : 1년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본 회의 취지에 부합한 우수한 인재에 한하여, 지속 선발하여 지원 가능함
- 신청 자격(아래 가, 나, 다, 라 모두 충족되어야 함)

구분	신청 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발원 취지에 공감하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2년제 이상 대학생
나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사찰8불교 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예: 신도증, 추천서, 확인서 등)
다	법정 저소득층 및 소득 구간 5구간 이하
라	직전 학기 평균 학점 B학점 이상인 학생 • 학점 4.5만점의 경우 총평점 3.5 이상 • 학점 4.3만점의 경우 총평점 3.3 이상

- 서류 접수 : 2021년 4월 1일(목)부터 4월 16일(금) 우편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21년 5월 21일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총무팀)
-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 바람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및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

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하 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밀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 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럿이 모여 하는 조리 활동을 하지 못해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생태 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 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생태 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봄부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니 뜻을 함께하실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3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수) / 오전 10시~12시 / 세계일화실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문의 후 참여해 주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 오전 10시~오후 2시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문의 후 참여해 주세요.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의류 재활용 봉사 모임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 중입니다.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승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홀로 어르신 밀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 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

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선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려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자비의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9. 가난한 절

###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일시: 3월 6일(토) 오후 6시~8시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법정 스님 입적 11주기 추모 법회** 일시: 3월 9일(음력 1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설법전

**관음재일** 일시: 3월 7일(일)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일시: 3월 13일(토)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3월 1일(월), 30일(화) /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부처님오신날 연등 공양**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중생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 가는 못 생명들을 위하여 연등을 환히 밝혀 주세요.

극락전(법당) 연등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	10만 원	가족등	3만 원
영가등	10만 원	영가등	3만 원

### 3월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지장재일	3월 1일 3월 3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기도	3월 6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3월 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법정 스님 11주기 추모 법회	3월 9일	오전 11시	설법전
초하루기도	3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3월 2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지장전

일요 가족 법회, 청년회 법회, 중·고등 법회, 어린이 법회, 새신도 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길상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